

# 걸음 걸음 참회... 부처님께 한걸음 더

## 혜원정사, 21일 적멸보궁 법흥사서 제3차 삼보일배 순례기도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희)는 9월 21일 강원도 영월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주지 도완)에서 제3차 삼보일배 순례를 진행했다.

지난 3월 속리산 법주사, 6월 오대산 월정사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순례는 1, 2차 참가자 및 9월초 개강한 불교대학 수강생까지 총 85명이 동행했다.

새벽 6시 부산을 출발해 오전 10시 30분경 법흥사에 도착했다. 이른 새벽 출발한 탓에 조금 이른 점심공양을 마치고, 절에서 준비한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떠나는 마스크, 장갑, 땀수건 등을 두르며 삼보일배를 떠날 준비를 했다.

주지 원희 스님을 선두로 똑같은 회색 법복을 갖춰 입은 불자 80여 명이 3열종대로 질서정연하게 걸음을 옮겼다. 법흥사 경내 초입에 자리한 산신각에서 출발해 적멸보궁까지 2시간여 삼보일배 기도가 시작됐다. 산비탈 길은 비 온 뒤 땅이 채 마르기도 전이라 미끄러웠고, 스무 걸음 걸기도 전에 진흙이 아까와 팔꿈치, 손바닥, 무릎에 묻었지만 어느 누구도 개의치 않았다.

삼보일배는 여러 뜻이 있지만 원래 불보(佛寶), 법보(法寶), 승보(僧寶)의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이다. 즉 1보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2보에 가르침에 귀의하고, 3보에 스님들에게 귀의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삼보일배 수행법에 참회라는 발원을 더해 한 걸음을 이기심과 탐욕을 떨치고, 두 걸음에 속세에서 더럽혀진 진심(真心)을 떨며 세속에서 그간 지었던 모든 업을 참회하고, 간절히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다가갔다.

3~40대 기운 넘치는 젊은 보살보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6~70대 이상 노보살이 더 많았다. 행렬 가운데 물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희 스님(왼쪽)과 영월 법흥사 적멸보궁까지 삼보일배 정진중인 신도들.

을 가누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장애를 가진 신도도 눈에 띄었다. 젊은이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삼보일배는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원만 회향 할 수 있었다.

2시간 여 삼보일배 기도 끝에 도착한 적멸보궁에서 발원문, 참회계 낭독, 연비, 축원 등 회향법회를 병행했다. 회향법회에서 주지 원희 스님은 “흔히 우스갯소리로 ‘절에 주자장이 불편하면 안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요즘 불자들은 부처님을 너무 쉽게 만나려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옛 어른들은 초하루에 절

에 올라가기 3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음식도 가려먹으며 정성을 들였는데 이 모든 과정 또한 기도”라며 “차를 타고 가기보단 걷기, 마냥 걷기 보단 삼보일배를 하며 1배, 1배 정성들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참된 불자의 자세일 것”이라고 설했다.

세 걸음 걸고 한번 절하며 자신이 지은 모든 업을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겠다는 또 다른 서원을 세웠으니, 진정한 수행이고 보살행이다. (051)866-777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불교계 공모전 각 분야별 개최

가을을 맞아 부산 불교계에 각종 공모전이 한창이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개산대제를 맞아 범어사 사진 공모전 및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고, 차 문화 글짓기 현상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범어청소년동네(이사장 정여, 051-581-2070)는 범어사 개산대제인 10월 10~11일 범어사 성보박물관 앞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10월 10일 오후 1~5시까지 ‘청소년 및 가족사신대회’를 열고, 범어사를 주제로 범어사 경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모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수, 051-513-4306)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오후 1시까지 범어사에서 ‘의상대사 아동청소년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부산차문화진흥연구원(회장 이경순, 051-809-1551)는 ‘제4회 부산국제 차 어울림 문화제’의 일환으로 ‘제1회 차 문화 선양을 위한 글짓기 현상공모’를 마련했다.

공모대상은 운문시, 시조 200자 원고지 15장 내외이며, 산문(수필, 콩트) A4 2장 등이다. 접수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도착분에 한하며, 당선작은 10월 16일 발표한다. 박지원 기자

## “축구가 마법 부린 것 같아요”

불국토를 찾아서  
멈추지 않는 도전, 동고성FC

세계 최강 스트라이커 티에리 앙리는 파리의 빈민가에서 불량한 유년시절을 보내던 중 TV축구중계를 보다가 축구에 매료돼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멋진 축구선수가 된 이들이 처음 축구를 시작했던

에서 얻어다 읽고, 원정대회에 나갈 때면 16인용 텐트에서 새우잠을 자야했지만 어느 한 사람 불평하지 않았다. 박 감독은 “축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법을 부린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시설에서 성장해 19세



동고성FC 유소년 축구단.

유년시절은 현재의 명성만큼 빛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어쩌면’이라는 일말의 희망만이 있을 뿐이었다. 바로 고성 보리수선원(선원장 승욱)이 창단한 동고성FC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그였다.

9월 16일 경남 고성군 개천면 보리수동산에서 동고성FC감독 박철우가 주축이 된 고성유소년 클럽(U-15)이 창단됐다. 보리수동산은 고성읍 옥천사 청련암 승욱 스님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결손 가정 어린이 및 청소년 70여 명이 함께 살고 있다. 승욱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 아이들의 체력과 인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축구였다. 예상대로 호응이 좋아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축구단에 들어왔다. 초등학생은 30명 중 14명, 중학생은 40명 중 20명 등 총 34명의 축구선수가 소속돼 있다. 사회복지사로 아이들을 보살피던 박철우 감독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타 축구부의 훈련을 몰래 보고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덕분에 박 감독은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 축구부 옷은 타학교

가 되어 독립하면 빼놓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들 동고성FC는 2003년 3월 용마축구단으로 창단해 2007년과 2008년 경남꿈나무대회에서 각각 초, 중등부 우승을 차지했고, 2008년 2월 제1회 STX꿈나무 축구대회에서 초등부와 중등부 모두 우승을 휩쓸었다. 그해 7월 대한민국클럽축구대회에서 중등부 서포터스상 수상, 8월 경남FC 유소년캠프에서는 모범상을 수상했다.

동고성FC의 승리의 주역인 신민규(14, 영천중1) 선수는 “아버지 얼굴은 생각 안 나지만, 박지성 선수처럼 되서 축구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또 골키퍼 김동천(14, 영천중1) 선수는 “김병지 선수를 능가하는 수문장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현우(15) 선수는 “U-18 팀인 진주고를 거쳐 프로 팀에 입단할 것”이란 멋진 포부를 밝혔다.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나쁜 길로 빠졌을 지도 모를 아이들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축구라는 방편을 통해 참된 불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박지원 기자

## 한가위 맞아 어르신께 ‘공양’

### 불교계복지관, 기초생활수급자등에 먹거리 전달

부산지역 불교계복지관들이 추석 연휴를 홀로 쓸쓸히 보낼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음식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내원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대표 이사 정현, 051-264-9033)은 9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복지관 앞마당 및 물운대아파트, 다대본동 등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60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장애인 30세대, 저소득가정 아동 10세대 등 총 100세대를 대상으로 송편 및 생필품 세트, 먹거리 등을 전달했다.

늘기뻐마을 동송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지현, 051-265-9471)은 9월 21~30일 사하구 대대2동 BMC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100세대에 각 쌀 10kg씩 총 1t을 직접 방

문 전달했다. 이어 추석 연휴 첫째 날인 10월 1일에는 독거노인 50세대에 송편과 제수음식, 라면, 부식 등을 전달했다.

불국토 융호종합사회복지관(대표 이사 혜종, 051-626-6737)은 추석 을 사흘 앞둔 9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차에 걸쳐 복지관 대강당에서 ‘한가위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고, 명절음식과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혜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대표이사 원희, 051-868-0138)는 10월1일 연제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총 50세대에 나물, 생선, 튀김, 산적 등 명절음식과 각종 제수용품, 속웃, 간식거리, 생필품 등의 선물세트를 직접 방문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 부산전역에 퍼지는 자비의 손길

### 생명나눔, 난치병 환우돕기·환자케어 위한 음악회 열어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비 지원 등 사업을 펼쳐온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한가위를 즈음해 부산 각지에서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9월 25일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난치병 환우돕기 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26차 환우로 선정된 문정희 씨는 연이은 사업실패와 당뇨병 합병증 등으로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한 후 장기입원과 진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



9월 25일 인제대 부산백병원 2층 로비에서 열린 제3회 환자케어 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

다. 전달한 후원금 275만5000원은 국제신문과 부산은행 등에서 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박지원 기자

##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현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소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불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문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심음산만덕의 기승

복장용 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제품명 : 순금전불봉안법륜대  
○재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높이 : 110cm  
○원통폭 : 45cm  
○입원폭 : 30cm  
○무게 : 25kg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지금 법당 탁자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현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소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불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문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현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소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불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문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